

# 조선시대 청주지역 경주이씨(慶州李氏)의 문집(文集) 간행

고수연 | 영동대학교 교양융합학부 조교수

1. 머리말
2. 경주이씨의 청주 입향과 문집 저자
3. 경주이씨의 문집 편찬과 간행
4. 경주이씨의 문집 구성과 내용
5. 맺음말

## 1. 머리말

문집(文集)은 개인의 저작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후손이나 후학들이 책의 형태로 간행한 것이다. 문집은 한문으로 기록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인물들의 문집은 개인의 기록이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문학적·역사학적·문헌학적으로 가치있는 자료이다.

이같은 문집에 대한 서지학적 접근이나 개별 문집의 내용에 대한 연구성과는 많은 반면, 역사적 접근이나 지역별, 혹은 가문별로 문집을 살핀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서지학적 접근과 개별 문집의 내용에 대한 연구성과 역시 영남지방에 집중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호서지역, 특히 청주지역은 16~17세기 전반에 청주지역에서 첫 번째, 호서좌도에서 두 번째로 신향서원(莘巷書院)이 건립(1570년)되었으며, 학문적으로 이름난 청주의 낭성팔현(琅城八賢)<sup>1)</sup>이 배출될 정도로 사림세력이 강했다. 그리고 이같은 청주지역 1대 사림세력은 수많은 문집을 간행한다. 본고에서는 그 중 청주 경주이씨 가문의 문집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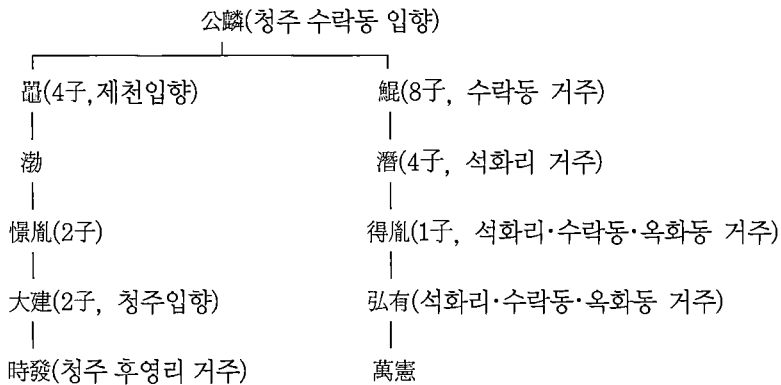
1) 낭성팔현은 松齋 韓忠(1486~1521)·江受 朴薰(1484~1540)·圭菴 宋麟壽(1499~1547)·慕溪 趙綱(1527~1599)·禾谷 鄭賜湖(1553~1616)·西溪 李得胤(1553~1630)·怡愉堂 李德洙(1577~1645)·晚洲 洪錫箕(1606~1680)을 가리킨다. 주지 하듯이 낭성팔현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 것은 조강의 문집 『모계집』 「부록」 권 3 택리조이다.

## 2. 경주이씨의 청주 입향과 문집 저자

### 1) 경주이씨의 청주입향과 활동

경주이씨 가문이 청주에 입향한 것은 시조 이알평(李諲平)로부터 23세손인 이공린(李公麟, 1437~1509) 때이다. 다음은 청주에 입향한 경주이씨(慶州李氏) 익재공파(益齊公派)의 간략한 가계도이다.

〈표 1〉 청주에 입향한 경주이씨 익재공파 가계도<sup>2)</sup>



경주이씨 익재공파의 청주 입향조 이공린은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6대손으로 흥덕현감·함열현감·창평현감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아들 이원(李龍)의 죄에 연좌되어 해남에 유배된 후 증중반정으로 풀려나서는 처향인 청주 수락동(현, 청주 미원면 가양리)에 입향하여 여생을 보낸다.

이공린은 오(鰲)·구(龜)·원(黿)·타(鼈)·별(鼈)·벽(鼈)·경(鯨)·곤(鯨) 등 여덟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총명하고 강직하여 세칭 ‘팔별(八鼈)’이라 하였다. 그러나 셋째아들 이원이 유배되자, 형제들 역시 흩어져 은거하였다. 이 중 이공린의 넷째 아들 이타는 처향인 제천으로 입향하였고, 이공린의 막내아들인 이곤이 바로 부친이 있는 청주 수락동에 정착하였다. 이공린-이곤 부자의 청주

2) (경주이씨) 『家乘』과 行狀(卞時益 撰, 『서계집』), 墓碣銘(李景奭 撰, 『서계집』), 李潛墓碣草記(李光胤 撰, 『漢西集』 권6), 慶州李氏益齊公派大同譜(益齊公派大同譜編纂委員會, 2009), 『剡溪先生門人錄并西溪先生門人錄』(淸州水洛宗中 편집간행, 1967)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입향 후 경주이씨는 파평윤씨·남양홍씨·초계변씨·안정나씨 등과 통혼하면서 지역사족으로 자리 잡게 된다.<sup>3)</sup>

청주에 정착한 이곤은 이른 나이에 사망했으나, 그 아들 섬계(洌溪) 이잠(李潛, 1528~1575)은 학문에 전념하여, 1567년(선조 즉위년)에 진사가 되었다. 그러나 대과를 치르거나 관직에 나아가기 보다는 향리인 청주 수락동에서 북서쪽으로 6km 떨어진 석화리(石花里, 현 청주 북이면 석화리)에 머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강학에 전념한다.

이잠의 아들 서계(西溪) 이득윤(李得胤, 1553~1630) 역시 석화리에서 태어났다. 이득윤은 1588년에 진사시에 입격했으나 부친과 마찬가지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연구와 강학활동에 전념한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난 1597년 이후에는 석화리에서 다시 수락동의 서계로 거처를 옮겼으며, 1609년에는 다시 옥화동(현, 청주 미원면 옥화리)으로 이거하여 학문탐구와 강학 활동을 전개했다.

이득윤은 청주지역 경주이씨의 중심인물이자 낭성팔현 중 한 명이고, 역시 낭성팔현인 조강과 정사호와 교류한다. 정사호는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1609년 무렵 이득윤이 거처하던 수락동 인근 화곡(和谷, 현 청주 미원 화창리)에 유연정(悠然亭)을 지어놓고 기거했는데<sup>4)</sup>, 이득윤은 정사호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하였다.<sup>5)</sup> 조강과 이득윤은 함께 신항서원을 창건하는 등 사림활동을 함께 전개한다. 그리고 역시 낭성팔현인 이덕수와 홍석기는 이득윤의 수제자인 것이다.

청주에 입향한 경주이씨 가문 자제들 역시 가학(家學)으로 이잠과 이득윤에게 배우게 된다. 이잠 문인록에 경주이씨 집안 친족이 12명 기록되어 있다.<sup>6)</sup> 우선 이잠의 아들 이득윤·이광윤(李光胤)·이명윤(李明胤)·이창윤(李昌胤) 4형제가 모두 부친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공린의 아들 중 제천으로 입향한 이타(李鼐)의 손자인 이경윤의 아들 3형제 이대수(李大濬)·이대건(李大建)·이대유(李大迪)도 모두 이잠의 제자이다. 이 중 이대건은 제천에서 다시 청주로 입향하게 된다. 이잠의 형 이정(李淨, ?~1594)은 석화리에서 문의 우록동(牛鹿洞, 현 청주 현도면 우록리)에 입향하였는데, 그 아들인 이충윤(李忠胤)과 이효윤(李孝胤)이 숙부인 이잠에게 배운다.

3) 고수연, 2015, 「16~17세기 李潛·李得胤 父子의 講學活動과 門人의 動向」, 『역사와 담론』 73집, 호서사학회, 198-200쪽 참조.

4) 李春英, 『體素集』下 「悠然堂記」.

5) 이득윤, 『서계집』 권2 「書」에 실린 정사호에게 보낸 편지로는 〈答鄭夢與賜湖〉(1608년), 〈與鄭夢與〉(1609년), 〈答鄭夢與〉(1609년)이 있다. 정사호의 문집인 『禾谷集』에는 이보다 더 많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정사호가 이득윤에게 보낸 편지 11편과 이득윤이 정사호에게 보낸 편지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정사호가 죽자 이득윤은 〈祭鄭禾谷賜湖文〉이라는 제문을 짓기도 하였다.

6) (경주이씨)『家乘』(간행년 미상) ; 『洌溪先生門人錄并西溪先生門人錄』(1967년 淸州水洛宗中 간행)

이잠 문인록과 마찬가지로 이득윤의 문인록에도 경주이씨가 10인이 기록되어 있다. 문인 중 이광윤·이창윤은 이득윤의 동생으로 부친 이잠의 문인이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형인 이득윤에게 수학했다. 이 중 이광윤(1564~1637)은 1594년 문과 합격 이후 형조좌랑·예조좌랑 등을 거쳤으며, 문집 『양서집』을 남겼다. 이득윤의 아들 이홍유(李弘有, 1588~1671)도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홍유의 아들 이만헌에게도 가학은 전해진다.

그 외에도 이잠의 제자인 이대건의 아들로 진천 초평에 거주했던 이시발(李時發, 1569~1611)도 이득윤에게 와서 배운다. 이시발은 1589년(선조 22) 문과 급제 이후 임진왜란, 이몽학의 난, 이괄의 난 때 활동했던 인물이다.

요컨대 청주 경주이씨 익재공파의 인물은 이잠·이득윤 부자를 중심으로 혈연과 강학으로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그 중 5인의 문집이 남아 전한다.

## 2) 문집의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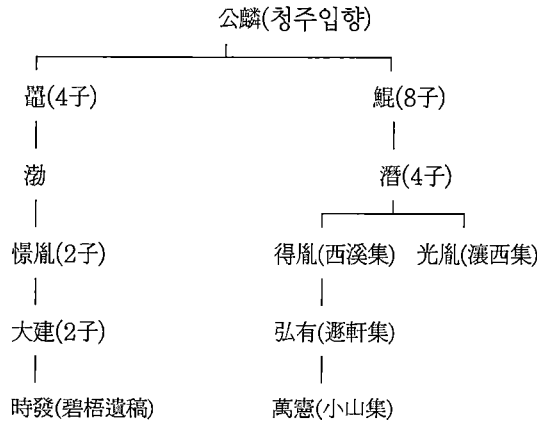
다음은 청주 경주이씨 가문의 인물 중 문집을 간행한 경우이다.

〈표 2〉 청주 경주이씨 문집간행 현황

문집명	저자	저자 생몰년	과거	관계
서계집(西溪集)	이득윤	1553~1630	진사	청주입향조 이공린 증손, 이잠 아들
양서집(漾西集)	이광윤	1564~1637	문과	이득윤 동생
벽오유고(碧梧遺稿)	이시발	1569~1611	문과	이득윤 족손
둔헌집(澗軒集)	이홍유	1588~1671	진사	이득윤 아들
소산집(小山集)	이만헌	1622~?	진사	이득윤 손자

이들은 모두 이득윤을 중심으로 혈연이 연결되어 있다. 간략한 가계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청주지역 경주이씨가 문집 간행 인물의 간략가계도<sup>7)</sup>



(1) 이득윤(李得胤, 1553~1630)

먼저 『서계집(西溪集)』의 저자 이득윤의 호는 서계이다. 부친은 청주지역에서 활발하게 강학활동을 전개했던 진사 이잠이며 모친은 진주강씨(晉州姜氏) 강응청(姜應淸)의 딸이다. 부인은 옥구장씨(沃溝張氏) 장징(張徵)의 딸이다. 이득윤은 청주 석화리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559년 7세부터 부친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다. 약관을 지나면서 고청(孤靑) 서기(徐起, 1523~1591)·수암(守庵) 박지화(朴枝華, 1513~1592)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다. 1575년(선조 8) 23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고, 묘소 아래에 작은 집을 짓고 살면서 당호를 추원당(追遠堂)이라 하였다. 1588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문도 수백인과 좌구산(坐龜山)으로 피난을 하고, 인근의 옥화동 안심곡(安心谷)에 동서재(東西齋)를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8)</sup> 1597년 1월 학행으로 희릉참봉(禧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부친과 마찬가지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연구와 강학활동에 전념한다.

1597년 3월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이때 석화리에서 수락동 서계 선영 옆 작은 계곡의 물가에 정사를 지어 ‘완역재(斲易齋)’라 하고 자호를 ‘서계’라 하였다. 1600년 48세에 왕자사부(王子師傅)에 발탁되었고, 1602년 형조좌랑으로 옮겼다가 질병을 이유로 돌아왔다. 1603년 51세에 공조와

7) (경주이씨) 『家乘』과 行狀(卞時益 撰, 『서계집』), 墓碣銘(李景奭 撰, 『서계집』), 李潛墓碣草記(李光胤 撰, 『灑西集』 권6), 慶州李氏益齊公派大同譜(益齊公派大同譜編纂委員會, 2009), 『剡溪先生門人錄并西溪先生門人錄』(淸州水洛宗中 편집간행, 1967)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8) 『경주이씨선세실록(慶州李氏先世實錄)』〈서계선생연보(西溪先生年譜)〉; 이득윤, 『서계집』 권3, 「축문」〈안심곡토지신문(安心谷土地神文)〉

형조의 죄랑에 제수되었으나 이 또한 질병을 이유로 사양하였고, 얼마 후 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04년 의성현령(義城縣令)에 제수되자 부임하여 3년을 근무하였다.

1608년 사계 김장생과 서신을 왕래하며 태극도(太極圖)와 역학(易學)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그 해 청주의 유정서원(有定書院, 신항서원) 원장에 추대되자 학문을 닦는 규훈(規訓)을 마련하여 많은 선비들을 훈도하였다. 1609년(광해군 1)에는 다시 수락동 서계에서 동남쪽으로 8km 떨어진 옥화동(현, 청주 미원면 옥화리)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리고 옥화동 옥화오곡(玉華五曲)에 춘풍당(春風堂)과 추월헌(秋月軒) 등의 건물을 짓고, 학문탐구와 강학활동에 전심한다.

1611년(광해군 3)에 삼남 지방에 통문을 보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무고한 정인홍(鄭仁弘)을 성토하였고, 1620년 「현금동문류기(玄琴東文類記)」를 편술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유일(遺逸)로 지평(持平)이 되고, 얼마 후 공조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즉시 나아가지 않았다. 가을에 선공감첨정(繕工監僉正)으로 옮기니 임금이 어찬(御饌)을 하사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1624년 2월 괴산군수로 부임하였다가 12월 귀향하였다. 괴산군수로 있으면서 상소를 올려 그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겨우 1년 만에 해직되어 돌아오니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그를 칭송하였다.

이득윤은 일찍이 낭성팔현으로 일컬어지며 청주 사람들에게 숭봉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신항서원 창건의 주역으로 9대 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1650년(효종 1) 천곡 송상현과 함께 신항서원에 추향되었다. 이득윤은 『여지도서』 충청도 청주목 「인물조」에 수록되어 있다.

## (2) 이광윤(李光胤, 1564~1637)

『양서집』의 저자 이광윤은 이득윤의 동생이다. 호는 양서(襄西)로 그가 머물던 경상북도 문경현 양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1585년(선조 18) 진사시에 합격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3년 의병장 이개립(李介立) 등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였다. 159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602년 호조좌랑을 시작으로 교리·수찬 등을 역임하고, 그리고 1605년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공으로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sup>9)</sup> 1607년 서천군수·부제학 등을 지냈다. 1624년 이괄의 난 때도 창의하였다. 사후 도승지에 추증되고 경북 예천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제향되었다.

## (3) 이시발(李時發, 1569~1611)

『벽오유고』의 저자 이시발은 이득윤의 족손이 된다. 호는 후영어은(後穎漁隱)·벽오(碧梧), 부친은

9) 이광윤, 『襄西集』, 〈年譜〉.

진사 이대건이고, 모친은 안동김씨(安東金氏) 김도(金燾)의 딸이다. 1574년 부친상을 당하고, 족조(族祖)인 이득윤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1589년 향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4월 문과에 합격하였다. 6월 승문원에 들어갔으나 9월 사직하고 청주로 돌아왔다. 1590년 여름 승문원에 들어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청주로 내려가 모친을 피난시키고 의병장 박춘무(朴春茂)를 따라 의병을 모집하였다. 1593년 강서(江西) 행재소에 가서 환도하여 민심을 수습하기를 청하였다. 가을에 접빈관으로 경주에 가서 명 장수와 함께 유숙하며 주선하니, 귀국할 때에 재능을 인정하여 천거하였다. 1595년 봄에 병조정랑이 되었다가 충청도순안어사(忠淸道巡按御史)가 되어 호서지방을 순찰하고 군사를 조련하였다.

1596년 7월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장락정(掌樂正)에 제수되었다. 동인들이 상격(賞格)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사직하고 청주 후영리(後穎里)로 돌아와 복거하였다. 겨울, 왜군이 다시 침략하자 찬획사(贊劃使)가 되어 충주 덕주산성(德周山城)을 쌓고 또 조령에 목책을 설치하였다. 1597년 가을에 왜적과 청주에서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였고, 겨울에 호조 참의가 되어 명군(明軍)의 군량 수급을 맡았다. 1608년 2월에 선조가 승하하자 빈전의 일을 맡아보았고, 5월에 평안감사가 되었다.

1609년(광해군 1) 1월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고, 11월 부인 민씨(閔氏)의 상을 당한 뒤 사직소를 올렸다. 1610년 4월에 진천 초평(草坪)에 집을 마련하였다. 6월에 명사(明使)가 나오자 어전통사(御前通事)가 되었고, 7월 비변사 유사당상, 9월 한성 좌윤, 11월 병조참판이 되었다. 1612년 김직재(金直哉)의 옥사에 연루되어 정경세(鄭經世)와 함께 하옥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식탈관직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1614년 12월에 서용하라는 명이 내리고, 1615년 안변부사(安邊府使)가 되어 부임하였다. 1624년(인조 2) 체찰부사(體察副使)로서 이괄(李适)의 난을 토벌하고 도원수 장만(張晩)과 함께 한강으로 나가 인조를 맞이하였다. 삼남도검찰사(三南都檢察使)로서 남한산성 수축을 감독하였고, 형조의 계사(啓辭)가 왕의 뜻을 거슬러 하옥되고 형조판서에서 면직되었다. 10월에 병으로 낙향하였다. 1626년 서울의 저택에서 졸하였고, 4월 진천현 초평리에 장사지냈다. 1708년(숙종 34) 영의정을 증직하고 ‘충익(忠翼)’으로 시호를 내렸다.

#### (4) 이홍유(李弘有, 1588~1671)

『둔헌집』의 저자 이홍유는 이득윤의 아들로 호는 둔헌(遯軒)이다. 1588년(선조 21) 청주 수락동에 서 태어났다. 1608년 부친 이득윤이 옥화대에 자리를 잡고 세한정(歲寒亭)을 짓자 이곳에서

부친을 모시고 독서하였다. 1614년(광해군 6) 3월 화양동에 들어갔고, 1615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621년 3월에 여러 사람과 비홍(飛鴻)에서 모임을 하였고, 9월 9일 추원당에서 강음(講飲)하였다. 1628년(인조 6) 3월 3일 변암(卞嶽)과 더불어 계회(契會)를 하였고, 6월 유두(流頭)에 십영시(十景詩)를 지어 신지익에게 올렸고, 7월 16일 야계팔경(冶溪八景)을 읊었다.

1630년 부친이 돌아가시자 문인 신지익이 곡을 하였다. 1633년 3월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고 다시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1644년 성현찰방(省峴察訪)에 제수되었다. 1648년 향인들이 도백(道伯)에 천거하여 도훈장(都訓長)이 되었다. 1653년(효종 4) 사대부들이 산장(山長)으로 추천하였다. 1656년 비홍사로회(飛鴻四老會)를 결성하였고, 1668년(현종 9) 81세에 산장을 사양하였고, 수직(壽職)로 가선(嘉善)에 올랐다.

### (5) 이만현(李萬憲, 1622~?)

『소산집』의 저자 이만현은 이득윤의 손자이자 이홍유의 아들이다. 모친은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 정습(鄭習)의 딸이다. 호는 소산(小山)·상우당(尙友堂)이다. 이만현은 청주 수락동와 석화리에 서 독서와 수행으로 평생을 마쳤다. 그는 정자(程子)와 주돈이(周敦頤)의 학문에 전념하며 과거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는 이유로 뜻을 굽혀 과거에 응시하여 1648년(인조 26) 식년시에 진사가 되었다. 이후 학행으로 유림의 천거에 의해 세마(洗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증조부 이잠 때부터 대대로 맡아온 산장에 추대되었지만 고사하였다. 묘소는 청주 석화리 작곡산(柞谷山)에 있다.

이상 청주 경주이씨 가문 문집의 저자는 이득윤(1553~1630)·이광윤(1564~1637)·이시발(1569~1611)·이홍유(1588~1671)·이만현(1622~?)이다. 이득윤의 동생이 이광윤이고, 이득윤의 아들이 이홍유, 손자가 이만현이다. 이시발은 이득윤의 족조이자 가장 가까이에 둔 제자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16후반~17세기를 살다간 인물로, 혈연지간이자, 사제지간이었다.

## 3. 경주이씨의 문집 편찬과 간행

### 1) 문집 편찬·간행



〈표4〉 청주 경주이씨가의 문집 편찬·간행 현황

문집명	저자	편찬자	편찬년대	간행자	권/책	판본	간행
『서계집』	이득윤	이득윤 사위 卞時望 4대손 卞至鼎	.	李靜淵 (6대손)	4/2	목활자	1833초간 이후 추가
		6대손 李靜淵 유문 증 보 재판	1833				
『양서집』	이광윤	.	.	.	6/3	목판	1752이후 초간 추정
『벽오유고』	이시발	자손	.	.	8/4	필사	미간행
『둔헌집』	이홍유	8대손 李匡榮	1890	李匡榮 (8대손)	4/2	목활자	1890자양재 초간
『소산집』	이만헌	후손 李圭尙	1922	李泌榮 (종7대손)	2/1	활자	1922가양리 초간

### (1) 『서계집』

경주이씨가의 문집은 주로 경주이씨가 후손이 편찬·간행하게 된다. 서계집의 경우도 이득윤의 사위 변시망(卞時望), 4대손인 변지정(卞至鼎)이 병란과 화재로 산실되고 남은 유고 약간 편을 수습하여 본손(本孫)에게 베껴서 소장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6대손 이정연(李靜淵)이 산재된 유문을 더 수집하여 증보·재편한 후 1833년에 목활자로 인행 초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833년 이정연이 지은 서계집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초간본은 『한국문집총간 속 8』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초간본에 후손 이창원(李漲源)의 부탁으로 1834년에 송흠상(宋欽象)과 이규서(金奎瑞)가 지은 발문 2편을 추가한 추가본이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2) 『양서집』

『양서집』 권6에 있는 동거(東渠) 이영문(李榮門)의 행장에 “본초(本草)에는 이 행장이 빠져 있어 동거공의 집에서 이를 얻어 재록(載錄)하였다”라는 주석이 달린 것으로 보아, 『양서집』은 이미 약간 권으로 가장(家藏) 되어 있던 초본에 유문을 더 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서집이 언제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양서집 권수에 실려 있는 연보 말미에 1752년 인산(仁山) 상현사(象賢祠)에 저자의 위판(位版)을 봉안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부록에 김응조(金應祖, 1587~1667)로부터 받은 이광윤의 묘갈명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양서집은 저자인 이광윤이 사망한 뒤 얼마 있다가

김응조로부터 묘갈명을 받고, 후대에 다시 문집 간행을 추진하여 1752년(영조 8) 이후의 어느 시점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3) 『벽오유고』

이시발의 유문은 사후 자손에 의해 정리되었으나 서·발이나 여타 편찬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서사(書寫)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송시열의 신도비명에 의하면, “영남에 있을 때에 지은 『주변록(籌邊錄)』 한 편이 있으며, 문고(文稿) 약간 권이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아들인 이경징(李慶徵)·이경억(李慶億)이 저자의 유고를 간행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며 『주변록』도 현재 전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저자의 글로 남아 있는 간행본이 없어 간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규장각에 필사본 한 책과 후손 이춘희(李春熙) 씨가 소장하고 있는 8권 4책의 필사본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1책 93장 분량으로 권의 구별이 없으며, 다만 표지 안쪽에 “소화(昭和) 4년(1929) 7월, 친천군이경종소장사본(鎭川郡李景鍾所藏寫本)에 의해서 등사(謄寫)함”이라고 쓰여 있어 일제시기에 본래 있던 사본을 다시 등사한 본임을 알 수 있다.

후손인 이춘희 소장본은 같은 필사본이지만 8권 4책으로 규장각 소장본에 비해 문집으로서의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내용도 풍부하다. 이 규장각 소장본은 『한국문집총간 74』에 수록되어 있다.

### (4) 『둔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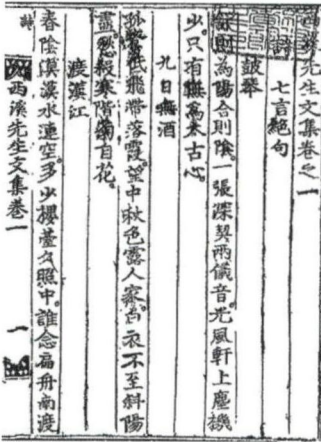
이흥유의 유고는 8대손 이광영(李匡榮)이 “선조 둔헌공의 유고를 집에 보관하였는데 편제를 ‘산민졸음(山民拙吟)’이라 하였으니 둔헌공이 쓴 초본(草本)”이다라고 하였다. 즉 이미 가장초고(家藏草稿)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광영이 수집·편차하여 1890년 자양재(紫陽齋)에서 활자로 초간본을 인행(印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초간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문집총간 속 23』에 수록되었다.

### (5) 『소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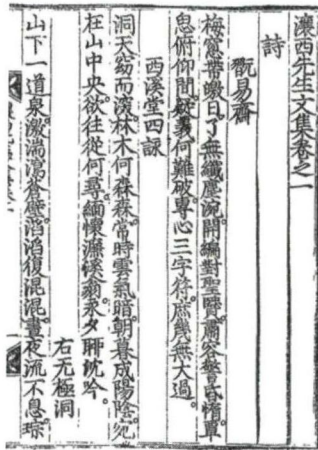
이만현의 유고는 후손 이규상(李圭尙)이 산일된 시문 약간 편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고, 후손 이필영(李泌榮)은 교수·편집하여 1922년에 청주 미원 가양리에서 활자로 인행하였다. 초간된 『소산집』은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

## 2) 서지 사항

5개 문집의 권1 부분은 다음 그림과 같다. 『서계집』, 『양서집』, 『벽오유고』, 『둔헌집』, 『소산집』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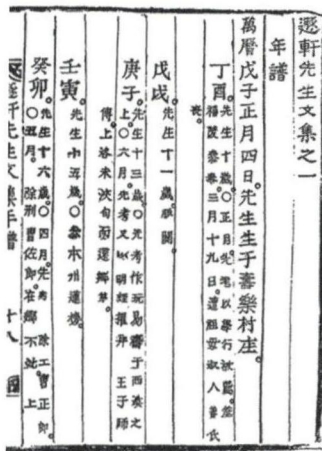
『서계집』



『양서집』

碧梧遺稿 卷一  
 溟西先生遺稿卷之一  
 仙查書齋賦 序  
 方望初撰時徐文行甫久微撰文於命。以不文拙辭焉。今既落成之。方與諸生講學。此乃孔後斯文之一身也。聞而樂之。終不可無一言。故綴拙語。為之跋陳辭曰。  
 惟願和之文。胡芳即遠東之鄒魯。偉大賢之輩出焉。事前後以換武秘。今作者之相望。芳老不更其餘規。

『벽오유고』



『둔헌집』



『소산집』

서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서지사항 표

문집명	권/책	판본	권수제	판심제	어미	반곽(cm)	행/자
서계집	4/2	목활자	西溪先生文集	西溪先生文集	上下三葉花紋	22.0×16.2	10/20
양서집	6/3	목판	讓西先生文集	讓西先生文集	上下二葉花紋	20.5×15.2	10/21
벽오유고	8/4	정사 (淨寫)	碧梧先生遺稿	×	無魚尾	17.0×11.5	권1~2 9/20 권3~8 10/20
둔헌집	4/2	목활자	遜軒集	遜軒集	內向三葉花紋	21.8×15.7	10/20
소산집	2/1	활자	小山公遺集	小山公文集	上三葉花紋	23.0×16.0	10/20, 간혹 18자

## 4. 경주이씨의 문집 구성과 내용

### 1) 문집 구성

〈표 6〉 경주이씨 문집의 구성현황

문집명	권/책	권수	문집구성
『서계집』	4/2	권수	序文1(洪奭周 지음), 目錄
		권1	詩53, 疏8
		권2	書24
		권3	雜著3, 序2, 題跋3, 箴1, 銘4, 祝文2, 祭文9, 行장3, 禮說14
		권4	附錄(만사3, 祭文1, 行장1, 묘갈명1, 祝文4)
		권미	跋文3(6대손 李靜淵(1833), 宋欽象(1834), 金奎瑞(1834))
『양서집』	6/3	권두	目錄, 〈歇馬庄雜詠題目〉, 연보, 봉안문(李萬敷지음), 상향문(朴成玉지음)
		권1	詩148, 歌1
		권2	詩85
		권3	詩43
		권4	중국 詩105
		권5	敎書6, 表4, 箋4, 疏2, 筭子3, 書2
		권6	上樑文2, 祝文6, 祭文14, 墓誌4, 부록

문집명	권/책	권수	문집구성
『벽오유고』	8/4	권1~권2	賦4, 詩270
		권3~권4	疏筭39, 啓辭1, 議1, 書啓1
		권5	書2, 묘지명1, 祭文19, 상량문3
		권6	雜著12
		권7	自序1, 謾記1
		권8	附錄(敎書3, 諡狀1, 신도비명1, 祭文·만사3)
『둔헌집』	4/2	권수	序文(金洛鉉, 1890)
		권1	연보, 文9, 書·제문·통문·記
		권2	文4, 詩54
		권3	詩202(오언절구23, 오언율시35, 칠언절구144)
		권4	詩192(칠언절구192)
		권미	跋文1(이광영, 1890), 간기
『소산집』	2/1	권두	序文1(9세족손 李鍾滢, 1921)
		상편	詩230(오언절구2, 오언율시36, 칠언절구102, 칠언율시90)
		하편	文(記9, 序2, 傳2, 跋2, 書11, 說2, 釋人言 등 4, 祭文3)
		권미	행록1(1890, 李集三), 跋文1(1921, 이필영) 〈小山公世系子孫錄〉

## 2) 문집 내용

### (1) 『서계집』(4권 2책)

『서계집』의 경우 권1에 실린 소(疏) 8편 중 <괴산군민막소(槐山郡民瘼疏)>는 1624년 괴산군수로 있을 때 병폐를 주달하고 시정책을 논한 것이다.

권2에 실린 서(書) 24편 중 <답김희원문목(答金希元問目)>은 옥화구곡에 칩거할 당시 김장생과 태극도와 역학에 관해 논변한 내용인데, 이때 왕래한 서신이 4편이 더 있다. 그밖에 미원 화곡에 살고 있던 정사호(鄭賜湖)와 왕래한 것이 4편 있고, 문인이자 족손인 이시발·사위 변시망 등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다.

권3에 실린 잡저 중 <사유정원장문(辭有定院長文)>과 <재사유정원장문(再辭有定院長文)>은 1608년 유정서원 원장에 추대되었을 때 사양하는 글이고, 제문은 청주의 사족인 서사원·정사호·변경복 등의 것이다.



권4는 부록으로 김상헌·최명길과 문인 등이 지은 만사 33편, 아우 이광윤·사돈 변유인(卞惟寅)·문인 변지익(申之益, 1588~1649)·윤승임(尹承任, 1603~1688) 등이 지은 제문 14편과 문인 변시익(卞時益, 1598~?)이 지은 행장,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묘갈명과 <신항서원축문(莘巷書院祝文)>·<수락서원축문(壽樂書院祝文)> 등 축문 4편이 있다.

## (2) 『양서집』(6권 3책)

『양서집』의 권5에 실린 소(疏) 가운데 <갑자평적후상소(甲子平賊後上疏)>는 1624년에 이괄의 난이 평정된 후, 앞으로는 과중한 세정(稅政)을 고치고 임금이 사치하여 인심을 잃는 일이 없도록 처신해야 함을 건의한 것이다.

권6에 실린 상량문(上樑文) 중에는 청주문묘(淸州文廟)에 대한 것이 있으며, 묘지에는 부친 이잠의 묘갈초기(墓碣草記)와 선비(先妣)의 묘지초기(墓誌草記) 등이 있다.

## (3) 『벽오유고』(8권 4책)

권1~권2는 시부(詩賦)가 약 270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와 시를 수창한 인물은 서사원·한준겸(韓浚謙)·이우(李瑀)·이호민(李好閔)·이정구(李廷龜)·정엽(鄭曄) 등으로 주로 서인들과 주고 받은 글이 많다. 이 중 권1의 <차청풍취운주필수기(次淸風俸韻走筆酬寄)>·<차괴산태수운(次槐山太守韻)>·<대괴산태수부지차운간기(待槐山太守不至次韻簡寄)>·<후영정차익지운(後穎亭次益之韻)> 등은 충북지역과 관련한 시이다.

권3~권4에 실린 계사(啓辭) 중에는 이시발이 정언으로 재직 시 정철(鄭澈)을 구호하다 체직된 계사가 실려 있다.

권5에는 이시발의 백부인李大수(李大遂)의 묘지명 등이 실려 있다.

권6의 잡저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 박춘무와 함께 청주에서 기병할 때 지은 <인의진격(仁義陣檄)>, 스승인 이득윤의 양모 나씨(羅氏)의 열녀전(烈女傳), 1600년에 자신의 조상인 이재현의 『익재집(益齋集)』을 직접 편차하고 선사(繕寫)까지 하여 간행한 뒤에 쓴 <익재집발(益齋集跋)> 등이 실려 있다.

권7에 실려 있는 자서(自序)에는 1608년 이시발 본인이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받아 광진(廣津)에서 대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관력과 개인사를 기록한 것이다.

#### (4) 『둔헌집』(4권 2책)

권1에 실린 <추원당기(追遠堂記)>는 부친 이득윤이 1575년 부친상을 당하고 묘소 아래에 지은 추원당에 대한 기문이다. <제양일당문(祭養一堂文)>은 부친 이득윤의 문인인 신지익에 대한 제문이다.

권2에는 부친의 행장인 <선고서계서생행장(先考西溪先生行狀)>와 청주지역 산장을 사양하는 글인 <사산장서(辭山長書)>가 있다. 칠언절구 4수 중 <봉정양일당주인(奉呈養一堂主人)>은 1628년 유두에 신지익에게 올린 것인데, 모두 십경(十景)을 읊은 것이다. <야계팔영(冶溪八詠)> 역시 같은 해 7월 16일에 지은 것인데, 신지익이 살았던 청주 야계의 모습을 노래하였다.

권3에는 저자의 거처였던 둔헌(遯軒)의 늦가을의 경치를 노래한 <모처좌둔헌우사즉경(暮秋坐遯軒偶寫卽景)>가 실려 있다. <침류정(枕流亭)>은 청천현 북쪽 무량동(無量洞)에 있던 황경신(黃敬身)의 정자를 읊은 것이다. 오언율시 중 <입화양동구점(入華陽洞口占)>·<제상벽정벽상(題雙壁亭壁上)>·<억침계정(憶枕溪亭)>과 칠언절구 중 <차봉황대신평보정자벽상운(次鳳凰臺申平甫亭子壁上韻)>·<등상당산절정망원(登上黨山絕頂望遠)>·<봉정송우암도계(奉呈宋尤庵道契)>·<제옥화정사벽상(題玉華精舍壁上)>·<강정월야문적(江亭月夜聞笛)>·<과남석교여본목급제장관설연장악(過南石橋與本牧及諸將官設宴張樂)>·<취제낙우당벽상(醉題樂愚堂壁上)>·<봉황대팔영(鳳凰臺八景)>·<경차낙우당주인구곡운(敬次樂愚堂主人九曲韻)>·<갈산계회파후승모모우이래마상구호(葛山稷會罷後乘暮冒雨而來馬上口號)>·<유선유동(遊仙游洞)>·<문장대(文藏臺)>·<읍청당(挹淸堂)>·<상당성(上黨城)>은 화양동·미원·궁현·옥화대·남석교·낭성·선유동·문장대·상당산성 등을 읊은 작품이다.

권4에는 저자가 살았던 청주와 관련한 작품인 <수락산거(壽樂山居)>·<여백족산승(與白足山僧)>·<차천팔경(遮川八景)>·<후운정상약여주인회적어시일유질미과(後雲亭上約與主人會適於是日有疾未果)>·<증백족승(贈白足僧)>·<홍원구판교연정(洪元九板橋蓮亭)>·<공림법당(空林法堂)>·<비홍사로회(飛鴻四老會)> 등이 있다. 이 중 <비홍사로회>는 1656년에 모임을 결성하고 지은 시인데, 모임에 참여한 ‘비홍사로’는 유제부(柳濟夫, 76세)·나자열(羅子悅, 76세)·이의원(李義源, 81세)·저자인 이홍유(69세) 네 사람이다.

#### (5) 『소산집』(2권 1책)

상편은 시(詩)로 총 230수가 시체별로 실려 있다. 오언율시의 <후운정(後雲亭)>·<산재추야차홍동계원구운(山齋秋夜次洪道溪元九韻)>·<홍도계산거(洪道溪山居)>·<차홍동계운(次洪道溪韻)>·<차홍상사일우운정도계(次洪上舍一字韻呈道溪)> 등 몇 수는 소산이 척종형제(戚從兄弟)인 만주 홍

석기와 주고받은 시이다. 청주 지역을 노래한 시로는 <울봉역효사(栗峯驛曉思)>·<낭비성(狼臂城)>·<등산당성(登山黨城)> 외 다수가 있다. 그 밖에 오언율시에 송시열이 소환을 당한 것에 대한 감회를 읊은 <문송우재피소환조유감(聞宋尤齋被召還朝有感)> 등이 실려 있다.

하편 기(記)에는 홍석기의 부탁으로 쓴 <후운정기(後雲亭記)>와 1647년에 수락산 선영 아래 조부 서계가 지은 재실 추원당에 대해 부친의 명에 따라 지은 <추원당기(追遠堂記)>를 비롯하여 <장육재기(藏六齋記)>·<만대헌기(晩對軒記)>·<백화헌기(百花軒記)>·<부취헌기(浮翠軒記)>·<서암묘사기(西巖茆舍記)>·<상우당기(尙友堂記)>·<범주헌기(泛舟軒記)>가 있다. 서(序)에는 <송왕거원서(送王巨源序)>·<사마소립의서(司馬所立議序)>, 전(傳)에는 이적춘(李迪春)을 입전한 <은암자전(隱巖子傳)>·이령(李寧)을 입전한 <칠송거사전(七松居士傳)>이 있으며, 서(書)에는 서원장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산장서(辭山長書)>와 서원을 대표하여 송시열에게 서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원중정소우재서(院中呈宋尤齋書)> 등이 있다.

권미에는 1890년에 종6세손 이집삼(李集三)이 기록한 <소산공행록(小山公行錄)>과 1921년에 쓴 종7세손 이필영의 <소산공문집발(小山公文集跋)>, 끝으로 <소산공세계자손록(小山公世系子孫錄)>이 부록으로 붙어있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시대 청주 지역에 세거했던 경주이씨 가문이 발행한 문집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문집은 모두 5건으로 이득윤(1553~1630)의 『서계집』, 이광윤(1564~1637)의 『양서집』, 이시발(1569~1611)의 『벽오유고』, 이홍유(1588~1671)의 『둔헌집』, 이만헌(1622~?)의 『소산집』이다. 이득윤의 동생이 이광윤이고, 이득윤의 아들이 이홍유, 손자가 이만헌이다. 이시발은 이득윤의 족손이자 가장 가까이에 둔 제자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16후반에서 17세기 청주에서 거주했던 혈연지간이자, 사제지간인 인물들이었다.

문집의 편찬자는 주로 경주이씨 후손들이었다. 그리고 문집의 간행은 저자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도 더 지난 19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다. 벽오유고의 경우 미간행이다. 이처럼 편찬연대나 간행연대가 모두 19세기로 상당히 늦게 편찬 간행되었으므로 원래의 시문집이 상당수 유실된 상태로 편찬·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 지역이나 청주 인물과 관련된 시나 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들 문집을 통하여 16세기 후반~17세기 청주의 사족 사회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조선시대 청주지역 경주이씨 가의 문집은 새롭고도 풍부한 청주 지역사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